



“ The 배려하고 The 존중하면 The 행복한 송정 ”

■ 스승의 날(5월 15일) 유래와 의미

▶ 스승의 날은 스승 존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 확립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위해서 제정되었다.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 대한적십자사가 세계 적십자의 날인 5월 8일을 기념하여 청소년적십자(JRC)가 결단된 학교에서 스승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63년 충청남도 내 JRC가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고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1965년 4월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 탄생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스승의날’(5월15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12월 5일)에 통합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식으로 ‘스승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 스승의 날은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로 학생들이 평소에 소홀했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로 따뜻한 애정과 깊은 신뢰로써 선생님과 학생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선생님과 제자 간의 올바른 윤리를 바로 잡고 참된 학풍을 일으키며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교육하는 숭고한 사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바로 알고 존경하여 사회를 정화하는 윤리 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정한 기념일이다.(1964년 5월 16일 청소년 적십자 중앙 학생협의회 결의문 참고)

▶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선생님께
감사의 문자를 보내 봅시다.

▶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앞에 계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봅시다.



▶ 우리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합니다.